



茶山의 명판결과 조선의 법 풍속(4)

양반의 횡포인가, 정의로운 처벌인가

18세기 후반 전라도 함평에서 상민(常民) 박유재가 양반 안승렴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 시신을 조사한 함평 사또는 시신의 머리 부위가 깨져 있고, 관자놀이도 구타당한 흔적으로 이미 딱딱했다고 보고하였다. 전신에 상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얻어터진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상민(常民) 박유재의 죽음

범인은 한 동네 양반인 안승렴이라는 자였다. 술을 잔뜩 먹고 취한 박유재가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큰소리로 양반이든 상민이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욕하자, 이에 격분한 양반 안승렴이 구타살해한 것이었다.

신분 간의 차이가 엄격한 세상에 위아래를 들먹이며 욕을 해대는 동안, 200호나 되는 큰 마을의 아무도 그를 말리는 자가 없었다. 오직 양반 안승렴만이 용감하게 나서서 박유재를 타일렸으나 말을 듣지 않자 사립문에 결박한 후 오줌을 먹고 나막신으로 머리와 온 몸을 세차게 구타한 것이다. 물론 안승렴 홀로 일으킨 사단은 아니었다. 그의 삼촌 안

의윤도 박유재를 묶고 오줌을 들이붓는 일을 거들었다.

안승렴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단지 옷깃을 잡아 넘어뜨렸을 뿐 구타하거나 오줌을 먹인 적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도리어 양반을 능멸하여 인륜을 어지럽힌 박유재를 몸소 응징한 자신이야말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함평 사또가 재차 신문하고 박유재가 죽기 직전에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로 안승렴을 지목했다고 하자,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

전라도 관찰사와 형조의 관리들은 안승렴의 악행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왕에게 보고하였다. 사실을 접한 정조는 격분했다. 힘센 양반이 힘없는 상민을 구타살해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조선왕조는 타고난 도덕성을 회복한 군자들의 다스림을 진정한 통치로 정의한 바 있다. 사실 모두가 소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군자로 변신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지상천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될 수는 없을 뿐 아니



글 김효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kimho@gjinue.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규정각 특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조선의 명의를', '조선 과학인물열전' 등이 있다.



조선후기의 싸움장면(신윤복 풍속첩)

라 더욱이 한 번에 군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에 조선왕조는 우선 양반들에게 도덕성 회복을 요구하고 군자다운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질서의 근간을 세운 후, 점차 아래 계층의 백성들에게도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계적 교화를 기획하였다.

조선시대 양반을 우대한 이유가 여럿이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양반들이 상민들에 비해 도덕성의 유지와 회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연히 상민들보다 나은 도덕성을 갖춘 양반들이 많았다. 그러나 더 많은 양반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양반들이 상민들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조선의 정치문화였다.

양반들은 잘못을 저지른, 다시 말해 유교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와 가치들을 어긴 자들을 매질하거나 동네에서 쫓아낼 권리가 있었다.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생각했다. 도덕적으로 고매한 양반이 인륜을 거스른 자들을 훈계하고 응징하는 일은 지극히 아름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부도덕한 양반들은 단지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백성들을 구타하고 고문하며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였다.

정조의 고뇌

정조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양반들의 횡포와 폭력이 정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지방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 상민들을 괴

롭히는 양반들이야말로 진정 조선을 갉아먹는 해충이라 생각한 것이다. 정조는 박유재의 사건 역시 이러한 호강(豪強)의 고질적인 병폐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을 천명했다.

“실로 안승렴의 행동을 보면, 단지 결박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넘어뜨려 굴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구타하고 발길질하고 심지어 오물을 입에다 붓고 나막신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모질고 악독한 행위를 모두 갖추었다. 참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잔혹한 일이다. 양반이 상놈에게 욕을 당하였다면 고을과 감영에 고소장을 올리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도리어 상민을 학대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국법을 안중에 두지 않은 것이다. 어찌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를 엄중 처벌하지 않는다면 시골에서 제 힘을 믿고 일을 그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는가? 안승렴을 엄히 신문하여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라.”

어명을 받은 전라도 감사는 본 사건을 재조사한 후 안승렴이 자신의 세력을 믿고 힘없는 상민을 결박하고 구타하여 살해한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안승렴은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다.

정약용의 이견(異見)

후일 본 사건의 보고서를 읽은 다산은 정조와 다른 생각을 펼쳤다. 안승렴을 단지 박유재를 죽인 살인자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산은 안승렴이 박유재를 구타하여 살해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안승렴이 박유재를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박유재가 상하를 거론하면서 양반들을 욕한 일은 반상이 엄격한 당시에 반사회적인 범죄였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못한 안승렴의 응징을 다산은 정의로운 처사로 칭송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워 죽여야 할 것은 도리에 어그러진 사나운 상놈들이다. 술에 취해 길에서 떠들고, 몇 백호의 큰 마을을 거론하며 마구 욕을 해댄 경우라면 전연 인륜이 없는 자이다. 마을에서 한 사람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안승렴처럼 혈기 왕성한 자가 흥분하여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담당했을 뿐이다. 안승렴은 한 마을을 위해 도리를 어긴 흉악한 놈을 없애서 모든 이의 치욕을 씻었으니, 이른바 사람을 죽였지만 의로운 경우이다. 다만 그 행동과 처벌이 지나치고 오물을 입에 넣은 일은 분명 법률에 어긋난 일이지, 더욱이 나막신으로 머리를 때린 것은 문제이다.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렸고, 야만스러움을 야만스

럽게 공격하여 의로운 응징이 퇴색하여 살인 사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만일 안승렴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박유재를 결박한 후 관아에 신고하여 처벌했다면 최고의 상책이었을 것이다. 혹은 마을의 어른들을 공회에 모이게 하여 그를 때려 죽였더라도 이 또한 백성을 위해 해로움을 없앴다 하여 반드시 죽을죄에 이르지 않는 것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의로운 폭력?

‘별 받아 마땅한 자를 응징하는 일은 의롭다’는 다산의 주장은 ‘정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응징의 임무를 국가에 맡겼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적으로 나서도 문제없다.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말이다. 다산은 조선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그 누구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 그 누구라도 응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의로운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산이 주장하는 정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또한 어떤 목적이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인가? 사실 폭력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닌가?

확언컨대, 과거를 탐구하는 일은 단지 옛날의 이야기로 회귀하거나 안주하려는데 있지 않다. 현재 우리가 가지는 정의에 대한 생각이 조선시대로부터 그리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폭력의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과거에 정의는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지금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풀어야 할 난제이다. ⑤

